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제부터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15대 대통령 선거가 김대중씨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를 두고 전국 이래 처음 이루어진 '정권교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기에는 변화에 대한 강한 기대가 짙게 배여 있다. 그도 그런 것이 장기적인 군사독재를 포함해 억압체제의 한 깨풀을 걷어내기라도 한다면, 속이 트일 듯한 실신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을 풀었다'는 말은 여기서는 적절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김대중씨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조차도 한가닥 못미더운 심정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당선을 전후한 시기의 나라 사정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서고 그것도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러하리라고도 짐작된다. 하지만 그보다 핵심이 될 듯한 까닭은 그를 떠받치고 있는 정당이나 사람들이 보수 이념에 젖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 커진 노동자 정치세력화 요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가 얻은 표는 예상했던 정도 보다 낮은 편이었다. 실망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터이다. 그러나 탄식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진보'를 표방한 대통령 후보는 몇 사람 있었지만, 노조 대표자가 직접 나선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것도 조직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미지않은 장래에 정당 결성을 예정하고 결행된 일이이

서 대선 결과에 대한 좌절은 그리 깊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주체적 조건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더 한층 촉진하고 있다.

IMF를 앞세운 국제독점자본의 탐욕에 찬 공격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행해지고 있고 국내독점자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펴고 있는가 하면, 보수정치세력을 판도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판에 박은 '신자유주의'의 길로 달려 나가고 있는 형세다. 이런 판국에 노동운동은 지금까지의 대응방식으로는 감당하기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어찌면 노동운동으로서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말이 위안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운동의 전면적인 정비 강화와 더불어 밀그대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가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치세력화의 바른 노선 세워야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노동자들은 정치세력화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오히려 매우 혐난한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점에서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올바른 노선을 세우는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독자적 역량만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정당의 구성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정당은 노동자를 핵심으로 하되 민중세력 또는 민족민주운동역량을 주축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추구될 전략적 목표 설정은 노선을 결정하는 필수적 요건이다. 현재 모색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는 아마도 '근본적인 사회개혁' 이 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 사회 상황과 구조에 비추어 보면, 변혁의 목표까지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온전한 유지도 아닐

뿐더러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사회개혁은 의회주의를 통한 정권 획득을 지향하면서 추구될 것인가. 결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현재의 정치체제나 구조에서는 의회를 통한 노동세력의 권력획득 구상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노동운동 또는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통일을 통한 권리접근 또는 권리획득을 추구하는 것이 이념적 기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 비추어 노동조직과 정치조직의 자율적 대등과 협력 그리고 동맹의 강화가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경험에서 드러난 오류와 시행착오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과도 같은 것이다.

정치세력화 지금부터 추진해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터서 부닥치게 될 어려움은 대단히 클 것이고, 깨뜨려야 할 벽도 도처에 널려 있다.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까지 늦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가로 놓여 있다.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들이 벌이는 대중투쟁과 사회운동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노동운동에 지위진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다. 대중투쟁과 자기발전을 위한 과제 해결이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투쟁 또는 정치운동의 영역을 넓히는 기본요건이다.

다음으로 다른 민중운동과 전보적 정치세력 그리고 다양한 시민운동과의 정치적 동맹이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주체역량 형성과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또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력과 지배세력, 자본진영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모색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지난 날의 무수한 단절과 깊은 좌절 그리고 참담한 실패의 경험을 더이상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내딛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 발전을 이끌 주체세력을 키운다는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